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

채널링의 감응 기술과 주체화 실천

이준용**

이 논문은 서울의 ‘채널링 상담소 C’에서 수행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채널러(channeler)’들의 감응 기술과 주체화 실천을 분석한다. ‘채널링(channeling)’은 인간 중개자인 채널러가 상위자아·신·망자 등과 감응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기술이다. 연구자는 첫째, 서구 신비주의·심령주의·자기계발담론 등 다양한 영성 실천의 계보가 한국 사회에서 계승·변형되면서 채널링이 어떻게 하나의 실천 체계로 구성되었는지 고찰한다. 둘째, 채널러가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연결 및 동맹을 통해 감응 가능한 공통장을 구성하고, 자기의 감각과 판단을 조정하며 주체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채널링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나 진리 명제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동원을 통해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신뢰와 작동 가능성을 획득하는 공동제작 과정의 결과물임을 제시한다. 이로써 채널링은 비가시적 타자들과의 감응을 통해 삶의 서사와 주체의 구성을 윤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천으로 분석된다. 채널링 메시지는 객관적 사실(fact)이나 주관적 물신(fetish)의 이분법을 넘어, 감응 조건과 관계 맥락 속에서 치유와 자기변형을 구현하는 관계적 실재 ‘팩티쉬(factish)’로서 작동한다.

〈주제어〉 채널링, 주체화 실천, 비인간 행위자, 감응, 번역, 팩티쉬

* 이 논문은 한국종교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과학기술학회에서의 발표문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junyongzen@snu.ac.kr

1. 들어가며

1)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채널링 상담소 C

서울의 한 상가 지하에는 ‘채널링 상담소 C’가 자리하고 있다. 상담소의 출입구 옆에는 ‘채널링 상담’을 홍보하는 안내 패널이 세워져 있다. 여기서 ‘채널링(channeling)’이란 일반적으로 상위자아·신·망자 등 비인간 행위자들과 소통하는 영적 기술로 이해되며, 이를 수행하는 ‘채널러(channeler)’는 메시지를 수신하여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이자 상담자이다. 상담소 외관은 작고 평범한 점포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다양한 장식과 물품이 배치되어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변 선반에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크리스탈이 진열되어 있으며, 천사 형상의 조각이 걸린 칸막이벽 뒤로는 영성 관련 서적과 힐링용 리클라이너 의자가 놓여 있다. 공간 중앙에는 이벤트 진행을 위한 큰 탁자와 개인 상담을 위한 원형 탁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신비로운 타로 문양이 새겨진 어두운 천이 덮여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상담소 C에는 채널러 A와 그의 수제자인 채널러 E가 상주하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과 치유 세션을 공동으로 맡고 있다. 채널러 A는 상담소 C의 설립자이자 오랜 경력을 지닌 영적 지도자로, 내담자와 그들의 상위자아 사이 연결을 매개하는 여러 유형의 세션을 진행한다. 채널러 E는 2022년 초까지는 수련 단계에 있었으나, 이후 채널러 A로부터 상담과 치유 세션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고 동료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의 고민은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의 일상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이며, 또 하나는 가족이나 대인관계의 갈등, 자아 정체성이나 진로 선택처럼 구조적이고 관계적인 이슈다. 여기에 더해, 삶의 의미

나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을 모색하는 영적인 사안도 적지 않다.

이러한 채널링의 실천을, 연구자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달리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주체화 실천(practices of subjectivation)’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체화 실천은 푸코가 후기 강의에서 다룬 핵심 개념으로, 그는 주체를 자기 자신·진리 담론·윤리적 규칙의 성찰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적 형식이라고 보았으며, 주체화를 본질적 자아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일정한 양식으로 훈련하고 돌보며 초월하려는 ‘자유의 실천’이라고 보았다(Foucault 1997). 마찬가지로, 연구자는 채널링 또한 단순히 초월적 존재와의 소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심리적·관계적 문제를 성찰하고 영적 자유를 모색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채널링은 어떠한 역사적 계보와 사회적 맥락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주체화 실천의 장으로 자리 잡았는가? 2장에서는 서구의 신비주의·심령주의·자기계발 담론·디지털 매체가 계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됨으로써 채널링의 실천 체계를 구성했는지 추적한다. 둘째, 채널링은 보이지 않는 상위자와의 연결을 통해 채널러와 내담자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게 하는가? 3장에서는 상위자아를 초월적 실체라기보다는 주체화 실천을 위해 동원되는 감응 가능한 타자로 간주하고서, 감응 훈련을 주체의 윤리적 재구성 과정으로 분석한다. 셋째, 채널링 메시지는 어떻게 감정과 판단을 변화시키는 실재적 힘을 획득하게 되는가? 4장에서는 채널링 메시지를 단순한 사실 혹은 허구로 판별하지 않고, ‘팩티쉬(factish)’ 개념을 통해 감응·기호 동원·번역·신뢰의 구성 과정을 거쳐 마치 ‘진실처럼’ 작동하게 되는 기술적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이처럼 연구자는 채널링을 역사적·윤리적·기술적 층위에서 분석하

고, 채널링을 통해 팩티슈적 서사가 삶의 서사에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치유 효과의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 인류학이 수행해 온 ‘타자의 실천’을 재현하는 작업을 넘어, 오늘날 현대적 삶 속에서 ‘영성 (spirituality)’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되어 작동하고 있는지 탐색하려는 시도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채널링은 먼저 초월적 존재와의 연결, 내면 이미지의 해석, 감응을 통한 메시지 구성의 측면에서 초월 경험의 내적 구성에 분석해 온 종교현상학의 통찰과 연결된다(오토 1987; 엘리야데 1992; 반 델 레에우 1995). 하지만 내적 체험의 분석만으로는 채널링이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과 윤리적 긴장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우며, 종교를 윤리적 실천과 사회적 조직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회학적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전 사회학자들의 작업은 종교가 구원 윤리를 통해 일상의 행위를 규율하고 삶의 질서를 구성하는 사회적 장치로 작동함을 보여준다(베버 2008; 뒤르켐 2020; Mauss & Hubert 1972; 1981). 이 계보의 후속 연구에서는 종교적 체험이 단일한 내면의 진실로 환원되지 않으며 오히려 담론·퍼포먼스·텍스트·기억의 장 속에서 사회적으로 실재화되는 과정을 조명했다(드 세르토 2013). 또한, 개인적 신념조차도 반복 감각 훈련을 통해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제도화된 결과임을 보여주면서 체험의 수행성과 그 감응적 내면화를 강조하기도 했다(Luhrmann 1989). 나아가, 주술적 실천이 과학 및 근대적 합리성과 단순히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례를 생생하게 조명하기도 했다(Geschiere 1997; Fontein 2014).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또한 종교적 실천을 특정 신념 체계나 체험으로만 보지 않고, 민속과학·주체성·신체 기술 등과 결합함으로써 실천의 구성 및 조정 양상을 구체화했다(이용범·강정원 2005; 구형찬 2020). 제도종교

바깥에서 비인간 존재와의 감응을 중심으로 실천되는 한국 무속은 채널링과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는 만큼 유익한 참조 틀을 제공했다(염원희 2012; 김동규 2017, 2018). 특히 최학락(2024)은 무속을 단일한 종교 체계로 환원하지 않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의 틀 아래 신령·무당·탱화·문화재·소비자·국가 등이 얽힌 다층적 네트워크로 분석하며, 신령의 ‘메타인격(metaperson)’이 무당의 신체라는 ‘탈 것’을 통해 종교·문화재·시장이라는 이질적 도관들을 횡단하는 양상을 밝혀냈다. 이는 신체를 단순한 신성성의 매개물로 보지 않고 신성성과 세속성이 교차하고 사회적 도관들이 ‘접히고(folding)’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실천의 물질성과 정치성에 대한 새로운 분석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이러한 최학락의 연구는 채널링의 신체를 감응 기술의 체현·비인간 존재와의 동맹·윤리적 거리 조절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ANT는 인간 주체를 고정된 실체로 간주하지 않고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와의 동맹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며 재조립되는 존재로 파악한다. 라투르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단지 “빌려온 것, 분배된 것, 암시된 것, 영향받은 것, 지배된 것, 배반된 것, 번역된 것”이고 주체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구성된 존재”에 불과하다(Latour 2005: 46, 50). 다시 말해, ANT의 주체는 네트워크가 발생시킨 하나의 효과로서, “타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존재”한다(라투르 2023: 378). 이 연구의 분석 틀로서 ANT가 가진 첫 번째 장점은,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구성 과정은 상이한 이해관계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번역(transla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목표를 연결함으로써 소통과 동맹을 가능케 하는 핵심 실천으로 정의된다(라투르 2018). ANT의 두 번째 장점은 초월적 존재로부터 수신되는 메시지를 진리나 계시로 보지 않고, 번역을 통해 구성되는 네트워크적 산물로 분석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객관적 ‘사실(fact)’과 주관적 ‘물신(fetish)’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으로 실재화되는 구성물인 ‘팩티쉬(factish)’로 이해되며, 팩티쉬는 그것의 진위 판단보다 어떻게 관계 맥락 안에서 구성되고 작동하게 되는지를 드러낸다(Latour 2010).

한편, 연구자는 인프라가 아직 부재한 채널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널러 개개인의 실천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무속이 제의적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치유와 제도화된 무업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면, 채널링은 개인적 감응 기술과 자기 서사 구성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돌봄과 자기변형의 실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푸코의 관점을 추가 분석 틀로 도입하고자 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작업에서 푸코는 권력과 지식을 주체 형성의 핵심 조건으로 분석하며, ‘통치심성(governmentality)’을 개인의 행위와 삶의 방식을 미시적으로 조직하는 권력의 양식으로 정의했다. 이 시기의 푸코에게 주체는 통치 장치들 속에서 자신을 규율하고 형성하는 존재였다. 이후 후기 작업에서 그는 주체가 통치 조건 아래에서도 특정한 진리와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변형하는 가능성에 주목했고, 이를 ‘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the self)’ 혹은 ‘자유의 실천’이라고 명명했다(Foucault 1997; 푸코 1997; 2007; 2016). 이때의 진리는 초월적 계시나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팩티쉬에 가까운 것으로, 주체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고서 실천을 통해 구성 및 획득하는 관계적 사건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주체화 실천을 푸코는 흥미롭게도 ‘영성(spirituality)’이라고 명명했고, 이를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획득하기 위해 신체·감각·정동을 매개로 자기 자신을 변형하는 일련의 훈련 과정으로서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영적 신체성(spiritual corporality)’은 신체에 진리가 부여되거나 반영되는 형이상학적 구조가 아니라, 신체 자체를 진리의 구성 및 실천의 장으로 재정의하게 한다(Carrette 2000). 통치심성·진리·자유·신체·주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푸코의 영성은, 초월성을 지양하면서도 주체성을 새롭게 사

유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는 유효한 분석 틀로 작동한다.

라투르와 푸코의 분석 틀은 오늘날의 채널링 실천이 가진 각기 다른 측면을 조명하게 한다. 전자는 비인간 행위자와의 구체적 연결 과정을 드러내지만, 주체의 윤리적 책임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고(조문영 2021), 후자는 통치심성과 주체 사이의 긴장 속에서 실천을 다층적으로 드러내지만, 비인간 행위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두 관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논문은 채널링이 가진 비인간 행위자와의 감응 기술과 영성 훈련으로서의 주체화 실천을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문헌연구·참여관찰·심층면담을 주요 질적 방법론으로 삼아, 채널링의 감응 기술과 주체화 실천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참여관찰의 주 현장은 C 상담소로, 약 6개월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공간의 물리적·상징적 구조, 주요 행사, 비공식적 상호작용, 구성된 간의 관계망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했다. 또한, 연구자는 채널링 세션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했고, 영적 네트워크의 연결 및 단절 그리고 윤리적 규칙 등을 감각적으로 포착했다. 연구 윤리 심의(IRB)의 승인 이후, 문지기 역할을 한 채널러 A의 중개를 통해 총 11명의 구성원과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제도나 전통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채널러들은 자신의 실천을 과장하거나 숨기기보다는 감응 기술의 구체적 훈련 방법·실패 사례·불확실성 문제에 관하여 솔직하게 진술해 주었다. 그러한 진술은 제도화되기 이전의 회색지대에서 실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히는 유의미한 민족지 자료가 될 수 있다. 전체 연구참여자 목록은 <표 1>과 같다.

본문에서는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이 높은 A, E, N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을 구성했으며, 채널링의 전반적 양상에 대한 해석에는 그 외 참여자들의 진술과 서사도 함께 참고했다.

<표 1> 연구참여자 목록

연구 참여자	나이	성별	신원
A	53	남	채널링 지도자
E	44	여	A의 수제자
I	42	여	채널러
J	75	여	채널러
K	31	여	채널러 겸 직장인
O	47	여	채널러 겸 직장인
N	42	남	채널러
P	50	여	채널러
S	28	남	채널러 겸 직장인
V	68	남	채널러
X	45	여	채널러

2. 채널링의 계보

채널링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신비주의적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현실을 초월하는 존재와 연결되려 한 오랜 감응의 역사이며, 고통·질병·죽음·운명과 같은 삶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고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한 기술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탁·서구의 주술사 전통·동아시아의 점복 체계·한국의 무속 등은 모두 트랜스적 감응 상태와 반복적 의례를 통해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을 조율하고 공동체적 질서와 연결하는 실천으로 기능해 왔다. 채널링의 실천은 ‘신비주의(mysticism)’ 전통과도 연결된다. 신비주의는 그리스어 *muein*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감각을 제한하고 내면화된 침묵 속에서 신성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실천을 뜻한다(성혜영 2014). 신비주의로 분류되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주의·이슬람의 수피즘·유대교의 카발라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면을 통한 초월적 연결을 시도해 왔으며, 이들의 실천은 인간이 감응 가능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통

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채널링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오늘날 채널링이라고 불리는 실천의 초기 형식들은 근대 이후 점차 대중적 관심과 실천으로 확산되었다. 18세기 스웨덴의 신학자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영적 존재들과의 교신 경험을 바탕으로 사후 세계의 구조를 상세히 기술했고, 이는 훗날 서구 ‘심령주의(spiritualism)’ 및 채널링 전통의 선구적 사례로 간주되었다. 19세기 중엽 미국의 폭스 자매는 죽은 자와의 ‘노크’ 대화를 통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심령주의가 종교 제도 외부에서도 감응의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다만 이 사건은 이후 조작 논란에 휘말렸고, 감응 실천의 진위와 효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인도 사상과 서구 신비주의를 통합하며 ‘신지학(theosophy)’을 창시했고, 에드가 케이지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아카식 레코드’라 명명된 우주적 기억 장과의 연결을 통해 개인의 질병·전생·미래 등에 관한 ‘리딩’을 수행했다. 기존 위계 구조의 해체와 종교의 세속화를 경험한 근대 사회에서, 계시·치유·자기 탐색이 얽힌 이 감응 실천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불확실성을 견디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윤리적 기술로 작동했다. 즉, 감응 기술은 초월적 권위에의 종속이 아닌 자율적 주체를 재구성하는 개인의 실천으로 전환되면서 근대적 자아 형성과 긴밀히 연결되었다.

이러한 감응 실천이 언제나 치유와 자기 탐색으로만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감응 기술이 외부 권력 질서와 맞물릴 때, 채널링은 오히려 주체의 내면을 질서화하고 통치 가능한 대상으로 배열하는 통치 장치로 전환되기도 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오컬트적 상상력과 감응적 실천을 아리안 신화의 초월적 권위와 결합하려 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브릴 협회(Vril Society)’라는 여성 채널러 집단의 존재가 회자되곤 하는데, 이들은 신화적 존재의 계시를 통해 나치 이

데올로기를 영적 권위로 꾸미려 했다는 음모론적 서사가 유통된다.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적 재구성과 음모론적 상상력이 얽힌 담론의 일부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감응 실천이 통치심성(governmentality)과 결합할 때 그 수행성이 특정 이데올로기의 권위와 정당성을 구축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0세기 후반 채널링은 자기계발 담론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대표적 채널러 제인 로버츠는 ‘세스’라는 존재와의 자동서기를 통해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창조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하며 주체의 창조력과 변화 가능성을 강조했다(로버츠 2024). 배우 셸리 맥클레인(1991)의 자전적 체험은 초월 체험에 관한 관심을 대중문화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닐 도널드 월쉬(2009)의 ‘신과의 대화’·제이지 나이트(2011, 2012)의 ‘랍타’ 등은 초월적 존재와의 감응 결과물이 자기계발 콘텐츠로 전환되는 흐름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채널링은 종교적 헌신이나 도덕 없이도 초월적 조언을 소비할 수 있는 편리한 자기계발 장치로 작동하게 되었고, 형이상학적 메시지는 소비 가능한 형태로 가공되어 자기 위안과 상품성을 결합한 영성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Alcock 1989). 이처럼 자기계발 담론 속에서 확산된 채널링은 피상적이고 상업화된 실천으로 비판받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주체의 감응 능력을 통한 연결과 변형이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번성한 형이상학적 종교는 감각적 체험과 자기변형의 실천을 통해 개인의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성의 장을 구성한다(Albanese 2023). 이는 현대의 ‘세속적 신비주의’ 혹은 ‘무종교의 종교’라고 규정될 수 있으며(성해영 2017), 그러한 탈제도적이고 개인화된 실천으로서 채널링은 현대 영성 계보의 흐름 속에 자리한다.

한국에서의 채널링은 1980년대 후반 서구 뉴에이지 담론이 번역 출판되며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특히 도시 중산층과 실존적 탐색에 관심 있는 청년 구도자들로부터 수용되었다. 2000년대 이후 채널링은 블로그·유튜브·SNS 등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을 계기로 더 개인화되고 다매체화된

영성 실천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이 시기 한국에서는 다소 회화화된 채널러들이 대중문화 속에서 소비되었고, 채널링은 진지한 믿음과 의심의 경계에 놓인 대상으로서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¹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채널러 A는 공신력 있는 채널러나 제도의 부재 속에서 한국의 채널링 실천이 어떻게 계승되면서도 변형되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여전히 작동 가능한 실천으로 구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자신을 특정 전통을 계승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영성 서적을 섭렵한 전문가로 소개한 중년의 남성 채널러 A는, 자신의 상위자아인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채널링 기술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블로그 및 온·오프라인 강의를 매개로 전수해 왔다. 이러한 실천은 A를 단순한 메시지 전달자가 아닌 채널링 기술을 학습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차별화된 인물로 위치 짓고, 채널링의 기존 계보를 계승하면서도 누구나 익히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감응 기술로 변형 및 재구성해 나가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채널링을 특정 전문가에게 귀속된 계시 전달 구조로부터 탈각시키고, 감응 기술과 메시지 구성을 주체의 윤리적 실천으로 재구성하는 계보적 전환점이다.

한편,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운명적 질서의 흐름을 감지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최상위의 우주적 존재라고 A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마치 통치심성이 의인화된 존재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실제로 시스템은 감응 기술을 통해 주체에게 영적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용 범위와 윤리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통치성을 행사한다. 즉 채널링 실천은 주체화 실천 기술이면서 동시에 통치심성의 내면화 장치로 기능할 위험성을 함께 내포한다. 채널러 A는 자신을 “시스템과 ‘계약’한 관리자”라고

1 한국정신과학학회 서울지회장은 채널링이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대중적 관심을 받아왔고 2000년까지 채널링 관련 서적이 이미 1,000여 권에 이르렀지만, 한국에는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으며 국내 채널러 중에는 아직 신뢰를 주는 인물이 드문 실정이라고 평가했다(조선일보 2008.1.17.).

정의하면서도, 이 양가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영적 통제와 자유의 사이에서 감응의 윤리적 가능성을 신중하게 탐색해 나가고 있다.

정리하면, 채널링의 계보는 신비주의·심령주의·자기계발·디지털 영성 실천 등 이질적 흐름의 교차를 통해 형성되어 왔으며, 감응 기술을 통해 주체를 구성하는 복합적 실천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다. 채널러 A와 제자들은 자동서기·트랜스 상태·명상·상위자아와의 교신 등 전통적 채널링 기술을 통합하고 다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실천 환경에서 체계화 및 확산시킴으로써, 기존 채널링 계보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주체화 실천으로 변형한 전환의 사례를 보여준다.

3. 채널링의 감응 기술과 존재론

1) 감응 가능한 타자와의 연결

채널러 A는 한 손으로 마치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듯, 그리고 무언가를 내담자 쪽으로 보내듯 공중을 휘젓는다. 눈을 반쯤 감은 채 왼쪽 아래를 응시하더니, 무엇인가 포착한 듯 침묵을 유지한다. 때로는 그 무엇인가에게 중얼중얼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 후, A는 자신감에 찬 어조로 말한다. “주파수 맞췄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마치 송신탑에서 발신된 전파가 특정 주파수를 맞춘 수신기에 닿아 음성이 들리듯, 이때 내담자의 내면은 채널러 A를 통해 처음으로 ‘상위자아’라 불리는 비인간 행위자와 교신을 시작했다. 내담자의 상위자아와 연결이 진행되는 첫 채널링 세션에서, 채널러 A는 자신을 “내담자와 상위자아를 연결하는 영적 통로를 구축 가능한 유일한 실력자”라 소개하며, ‘채널(channel)’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일단 ‘채널’이라는 건 통로예요. 우리가 뭐랄까, TV의 채널이 있고, 주파수가 있잖아요? 주파수를 맞추고 연결하면 일종의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주파수 중에서 ‘상위자아’와의 대표적인 주파수를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길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길이 몇 가지 있죠. 그 중 대표적인 길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 길에 구축한 통로를 따라 내가 계속 상위자아와 작용과 반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채널러 A 인터뷰 2024.12.3.)

무한한 파장 속에서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한 주파수를 선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때, 채널러 A의 손짓·응시·침묵·감응·질문은 일종의 무대장치로 동원되며, 나와 나 아닌 것 사이 혹은 나와 나의 더 나은 가능성 사이에 비가시적 통로가 구성된다고 믿도록 유도된다. 이 절에서는 퍼포먼스의 사실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그 실천이 주체성과 관계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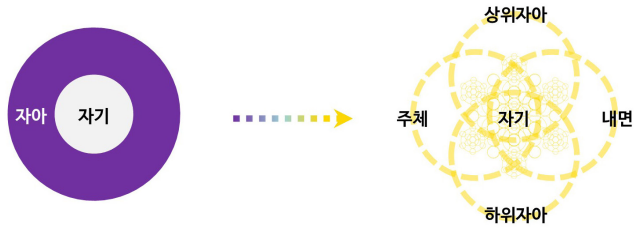
채널러 A의 설명에 따르면, ‘상위자아’는 내담자보다 더 높은 층위의 시야를 가진 존재로, 현재 삶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타자이며, 이는 사회적 행위자를 초월하는 규범적 상위자 ‘메타인격’과 유사한 존재다(Sahlins 2017). 다만 채널링에서의 상위자아는 특정한 초월적 존재일 수도 있지만 단지 내담자의 미래자아일 수도 있고 다차원적 자아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채널러 A는 “저는 반드시 최고를 연결하지는 않아요. ‘데미’가 맞는 상위자아를 연결하는 거죠”라고 설명하면서, 영적 권위나 역량을 가졌는지 여부가 아닌 감응적 적합성과 대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래자아가 나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강조하며, 미래자아는 내담자와의 적합성이 높아 정서적 위로와 안정은 줄 수 있으나 자기변형을 유도하는 데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너무 유사하거나 너무 다른 존재 모

두 유의미한 변화를 제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주체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에 있는 행위자가 “질적으로 좋은” 이상적 타자로 고려된다.²

이와 같은 타자에 관한 설명은 주체의 ‘내면’에도 적용된다. 채널링에서 내면은, 심층 심리학에서 상징하는 것처럼 탐색해야 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타자의 형식을 취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타자로 이해된다. 또한, 내면은 성별에 있어서도 고정적이지 않은데, 채널러 A는 “실제로 내면이 남성인 여성 혹은 내면이 여성인 남성이 많이 발견된다”며 외면과 내면의 젠더 불일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나아가, 내면은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축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그 이름이나 형상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채널링에서 주체의 내면은 고정된 자아의 심층 영역이 아니라 타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엮히고 변화할 수 있는 일종의 ‘공통장(common)’으로 간주된다(권범철 2025).

채널링은 주체의 감각과 해석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채널러 A는 “소통하려면 마음을 ‘null값’으로 만들어야 해요”라고 반복적으로 조언했다. 이러한 ‘판단 중지’는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감응의 장을 독점하려는 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타자와 연결 및 공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타자로 등장하는 상위자이나 내면 또한, 자아처럼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언어를 동원한 경계 설정을 유예하고 주체를 공통장의 형식으로 열어두기 위해 상호 이용하는 실천적 매개다. 감응 가능한 타자의 동원을 통해 구성되는 채널링의 주체화 실천은,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경우 속에서만 유지된다는 ANT의 존재론과 공명한다. 라투

2 예컨대, 자유분방하고 호기심 많은 청년 채널러 S의 상위자이는 ‘엘프’, 학식이 많고 담대한 노인 채널러 V의 상위자이는 ‘백두산’, 과묵하고 자기확신이 강한 채널러 N의 상위자이는 기독교 천사 ‘미카엘’이었다. 이처럼 상위자이의 설정에서는 현실·판타지·종교의 세계관을 유연하게 혼용되고 내담자의 성향과 가장 유사한 캐릭터가 선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1> 채널링에서의 주체성

르(2023: 74)는 “어떤 것도 단순히 고정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없고, 동일자가 되거나 동일자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타자들을 경유하고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상위자아와의 연결은 단순한 조언 요청을 넘어, 주체가 자기 동일성을 유지 및 재구성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타자를 호명하는 존재론적 필수 실천이 된다. 이러한 채널링에서의 주체성은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주체는 닫힌 ‘실체’가 아니라 타자를 경유하며 구성되는 열린 ‘형식’으로 재정의되고(Falzon et al. 2013), 공통장의 미세한 경계선들은 상호 간의 교류를 증대시키는 통로로 정의된다(이준석 2022; 라투르 2023). 마치 민족정신의학의 치유자가 객체를 고정된 표상이 아닌 치유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에너지적 행위자로 활성화하듯이(Latour 2010), 채널러는 비인간 타자가 출현하고 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내담자 안에 감응의 공통장을 구성하고 열어둔다.³

ANT는 채널링의 주체화 실천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이론 틀을 제공

3 주체성은 상호작용에서만 드러나는 하나의 형식이자, 나아가 본래 속이 텅 빈 것일 수 있다. ANT의 관점에서 실체는 힘겨루기에 저항하는 것이라 정의되고, 더 많은 필터를 통과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구성물로 간주된다(라투르 2016, 2018). 그것의 실재성은 타자와 교집합을 이룬 공통 공간에서만 발견되는 반면, 여집합 공간에 남겨진 독립적 자이는 사실상 감각될 수 없으므로 불확실하고 무의미한(non-sense) 배경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른다. 그렇게 ‘인식론적’·‘심리학적 과장’을 벗어나고 나면 타자와 주체는 단지 텅 빈 형식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라투르 2023: 277).

하지만, 그것이 수반할 수 있는 윤리적 책임의 문제와 병리적 해석의 가능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가 비록 하이브리드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우주 전체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겸허함을 내포하지만(하먼 2021), 자기의 일부 작동을 외부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태도는 때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서는 불안정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랭 2018). 이 연구에 참여한 채널러들과 교류했던 한 종교학자는 실제로 이들이 “자아 팽창(ego inflation)’과 ‘영적 우회(spiritual bypass)’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채널러 A는 자신이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분할’ 기술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적 분할과 병리적 분열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게 유지되고, 자아초월과 정신이상 사이에서 “스캔들”은 언제든 야기될 수 있다. 즉, 비인간 타자와의 소통은 병리적 해석 틀에서 조현병의 징후로 진단될 만한 가능성과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의료인류학적 분석에 따르면, 현대 의학은 자아의 정상성을 ‘소유권(ownership)’과 ‘저자성(authorship)’의 일치 및 통합 상태로 정의하고 이들의 분리를 병리 상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문화심리학적 전제를 수용하면, 분리는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의 증축 혹은 감각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라세드 2023).⁴ 예컨대 무속의 문화심리학적 전제를 수용하면, 채널링은 “완결된 몸의 경계를 갖는 근대적 개인

4 콘(2018)에 따르면, 아마존의 일부 부족에서는 혼(魂)을 볼 수 없는 상태인 ‘혼맹(soul blindness)’을 오히려 비정상 상태로 간주한다. 이처럼 타자와의 관계를 상실한 혼맹 상태, ‘타자와-함께-타자 되기’를 실천하는 채널러의 상태, 병리적으로 분열되거나 비인간 행위자에게 병의되어 주체를 상실한 상태는 하나의 스펙트럼상에 함께 놓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서로 다른 정상성 기준들은 단지 각각의 문화심리학적 전제에 따라 스펙트럼의 특정 지점을 지향하도록 유도하는 통치 장치일 뿐일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채널러 V는 “비정상성에 대한 낙인 효과를 사회 제도 차원에서 적극 조장하는 흐름은, 사실 영적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에서, 내부적으로 함축된 관계에 사로잡힌 신화적 참여형 인격으로의 전환”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최학락 2024: 23).

그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더라도 감응의 공통장이 조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채널러 A는 “상위자아와의 연결이 한 번 성립 되더라도, 이후 주체적 사고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결’이 어긋나면, 상위자아가 멀어지거나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응의 공통장은 감응 및 관계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만 지속된다. 마치 과거 공유되었던 대지가 이제 사적 소유권의 주장 아래 경계 지워졌듯이, 심리적 공통장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계산에 의해 얼마든지 다시 폐쇄되고 고립될 수 있다.

2) 타자와의 동맹과 자기 재배치

“세상에 내 편이 없다”고 느끼던 한 주부가 채널링을 배우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말하게 되기까지, 이 치유의 서사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을 넘어선 주체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 변화의 이면에는 타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재배치하며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주체화 실천이 작동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채널러 A의 수제자이자 동료인 채널러 E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인간 행위자와의 동맹 형성이 주체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여 소통 가능한 주체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저는 가정주부니까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채널링을 배운다고 했을 때, 저는 6개월 이상 고민을 많이 했고, 남편이 그때 공황장애도 있고 해서, 힐링으로 치유를 해줘야겠다는 강한 믿음이 생겨서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단순 호기심으로 배운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빴죠. 한번은 사이버 종교와

관련지어 의심하고 “산에 끌려가서 한 달간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깔깔 비웃기도 했죠. 그래서 밤에 혼자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때 “내가 배워서 꼭 치유 효과를 보여 주겠다”는 오기가 생겼었어요.

(채널러 E 인터뷰 2024.9.10.)

과거에 채널러 E는 오랫동안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관계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복합적 감정과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내가 당신 직원이야?”라고 물어야 했던 경험을 회고하며, 가정 내 위치에 관한 자신의 감정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단순한 피해자-가해자 구도로 규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주눅이 든 채 살아왔던 것”이라며 책임의 일부를 자신의 선택으로 돌렸다. 즉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가부장적 억압이나 착취로 단순화하지 않았고, 가정주부의 위치와 역할 속에서도 스스로 나름의 주체성을 구성해 왔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채널러 E의 진술은 가정 내 무임금 재생산노동 혹은 돌봄노동에 대한 구조적 착취를 비판하고 사회적 가치 책정을 요구해 온 도덕적 문제 제기와는 구분된다(페데리치 2023). 물론 그러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노동의 가시화와 정당화를 위해 제도적 언어와 가치 기준을 동일할 경우 다시 통치성의 장치로서 포획될 위험이 있다(김주환 2017). 이에 반해, 채널러 E의 실천은 억압에 대한 직접적 저항 혹은 젠더 규범의 전복이 아닌 규범 내부에서 특정 덕목을 체화해 나가는 자기수양적 실천으로서(Mahmood 2005), 또 다른 윤리적 층위를 드러내고 있다. 도덕(morality)이 사회적 규범과 의무에 대한 복종 또는 저항을 토대로 작동한다면, 윤리(ethics)는 그러한 이분법적 규범 틀을 넘어 주체가 자율적으로 자신을 구성하는 주체화 실천을 요구한다(Laidlaw 2002, 2017). 주체화는 단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방식·관계 맥락·자기 이해의 역사성을 함께 재구성하는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다(Falzon et al. 2013). 그렇게 채널러 E는 가족 내 돌봄 노동자 역할을 단순히 수용하

거나 거부하는 것을 넘어 자기돌봄의 실천을 통해 관계 속의 자기 위치를 재구성해 나갔으며, 이는 주어진 규범 내부에서 윤리적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주체화 실천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초기에 채널러 E는 “내가 채널링을 할 수 있다고? 사기인가?”라는 회의와 가족을 치유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상위자아와의 최초 연결은 스승 A가 대신해 주었지만, 연결을 유지 및 작동시키기 위한 반복 감응 훈련은 제자 E의 몫이었다. 상위자아와의 소통을 처음 시도한 시기를 회고하면서, 그녀는 “내가 미쳤나, 다중인격인가 싶었다”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명확한 응답이 들리지 않던 시기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은 채 연습을 이어나갔고, “왼쪽이 나, 오른쪽이 상위자아”라는 구도를 상상하면서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감응 훈련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그저 내면의 독백처럼 느껴졌지만, 반복된 실천 속에서 점차 자신이 상정한 위치 바깥의, 위쪽이나 내부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메시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인지, 자신과 연결된 그 존재의 응답인지, 혹은 자기를 흉내 내려는 또 다른 타자의 개입인지 점차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타자와의 첫 연결은, 그녀가 가족과 함께 있음에도 느꼈던 “비어 있는 감각”을 채우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회복했으며, 이후 또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새로운 역할 수행에 필요한 관계적 역량을 점차 체화해 나갔다.

“구분의 근거는 ‘위치’였어요”라는 채널러 E의 말처럼, 공간 감각은 채널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특히 상위자아는 각기 구체적인 공간적 위치를 갖는 존재로 가정되며, 이러한 위치는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감응의 방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 채널러 A의 경우, 영성 담론의 영향을 받아 ‘코잘계’·‘아스트랄계’와 같은 고유명칭을 활용하며 비가시적 세계를 계층적 구조로 체계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벤토프 1987; 2001; 월버 2008; 슈타이너 2024). 반면, 채널러 E는 “그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 있다고 전제한 채 따라할 뿐”이라고 솔직히 밝혔다. 이는 많은 채널러가 우주적 구조를 온전히 식별하기보다는 이미지나 감각적 울림을 통해 포착되는 인상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때때로 누군가의 상위자아는 최상위 신격에 해당하는 존재로 변경되기도 한다. 채널러 E는 자신 안에 신 B와 신 D의 존재를 수용하게 되면서, 그들과의 관계적 거리와 상호작용 방식을 신중하게 재정립해야 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처음 신을 내 그릇 안에 담았을 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왼쪽 눈에 신이 자리했는데,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힘들어지는데도, 신은 분리를 안 하려고 하고 계속 막았어요. 점점 뒤통수, 목, 승모근, 가슴까지 다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죠. 뇌가 녹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뜨거워졌어요. 마치 아이가 게임에 빠지면 정신줄 놓고서 계속 게임을 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또 하고 또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못 하게 했었어요. 결국 그 존재에게 화를 냈고, 역지로 분리를 시켜서 다시 100m 바깥으로 밀어냈어요.

(채널러 E 인터뷰 2024.9.7.)

동일한 신을 간접적으로 연결했을 때는 “정말 신처럼 느껴졌다”고 E는 회고했다. 이는 ‘신을 자신의 그릇 안에 담는’ 실천이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 나아가 권력관계마저 전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채널러 A의 리딩에 따르면, 채널러 E가 신체 안에 받아들인 신은 “다섯 살 수준의 신”으로 현현되었다. 본래는 더 격이 높은 최상위의 존재였지만, E의 신체를 매개로 현상계에 실재화되는 과정에서 미성숙한 형태로 구현되었고, 따라서 E의 신체와 공통장을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

레는 신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감응 조건에 따라 ‘훈육되어야 할 타자’로 변모하는 관계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또한, 신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실재성과 작동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김홍중(2022: 19)의 표현을 빌리면, 신은 “자유주의적 객체가 아닌 인간-비인간 하이브리드”로서만 존재하며, 특정 인간 행위자의 감응을 통해서만 관찰되고 개입하며 작동하는 간접적 존재로 나타난다.

채널러 A는 “신들은 대개 ‘내가 제일 잘났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서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들이 가진 강한 독립적 성향이 동맹 형성에 있어서는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대로 인간 행위자의 상대적 강점은, 강한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장의 소유를 일시적으로나마 유보함으로써 타자와의 감응적 공유와 동맹을 가능케 하는 겸허함에서 비롯된다. 이때 겸허함이란 도덕적 성품이기보다는 비인간 행위자와의 동맹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윤리적이고 전략적인 덕목에 가깝다.

이처럼 채널링 실천은 타자와의 거리와 감응 조건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과정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채널러 E의 경험은 감응을 통한 연결과 ‘빙의(possession)’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타자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면 주체는 판단 및 저항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타자의 “아바타(avatar)”로 전락할 수 있다. 반대로, 타자를 지나치게 검열하면 동맹 관계가 단절되고 상호 이용 가능성 또한 차단될 수 있다. 채널러 A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의 실천을 “리밸런싱(rebalancing)”이라고 부른다. 리밸런싱은 각각의 주체에게 최소한의 지배와 자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권력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정치적 기술이며, 이는 완전한 단절도 완전한 수용도 아닌 감응 및 연결 가능한 존재 양식을 구현하고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체화 실천이다(Foucault 1997; 라투르 2024; 밀러 2024).

채널러 E는 감응 기술과 관련된 상징으로 ‘카두케우스(caduceus)’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상징은 본래 고대 그리스 전령신 헤르메스의 지



<그림 2> 카두케우스

팡이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미군 의료부대의 상징으로도 활용된다. 두 마리의 뱀이 중심축을 따라 교차하며 올라가는 형상은 상반된 두 세계를 매개하고 소통시키는 전령이자 경계 안내자의 역할을 뜻한다<그림 2>.

카두케우스는 중세 유럽에서도 마녀-치료사들에 의해 치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계승되었다(Morgan 2021). 마녀-치료사들은 당시 “의사나 병

원에 접근할 수 없던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일반 의료 제공자”였다(에런라이크 & 잉글리시 2023: 58).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종교 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이들은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었고 권력을 박탈당한 채 ‘가정주부화’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미즈 2014; 페데리치 2011,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채널러 E를 비롯한 가정주부 출신 여성 채널러들이 자신을 “마녀”로 호명하는 것은 단순한 정체성 선언이 아니라 과거에 박탈되었던 정동적 감수성·치유 기술·돌봄 역량을 복원하려는 실천적 선언으로 읽힐 수 있다. 이처럼 인간과 비인간, 과거와 현재, 일상과 비일상 사이를 연결하는 마녀-치료사들의 실천은 경계를 구성 및 재조정하는 노동이며, 이를 ‘경계노동(boundary work)’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이준용 2024).

경계노동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채널링 실천을 시작한 이후, 채널러 E는 “엄마들 모임에 나가는 일이 에너지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고, 가족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에서도 “결이 어긋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그녀의 중심이 기존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감응의 네트워크는 연결의 규모가 확장될수록 행위력 또한 증가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타자들과의 조율·책임·제약을 수반하게 된다. 그 결과 채널러는 거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능동적 주체라기보다는, 네트워크의 관계적

리듬에 반응하며 ‘중간태(the middle voice)’의 형식으로 조율된 목소리만을 발화할 수 있는 준주체적 실천자로 위치 지워진다. 따라서 마녀-치료사로서의 채널러는 드라마틱한 영적 성취와 행복에 도달하기보다는, 마치 가정주부로서의 비가시적 돌봄노동이 그렇듯, 타자들과의 거리와 관계를 끊임없이 리벨런싱하는 비가시적 경계노동을 수행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오늘날의 마녀들은 채널러 E의 표현을 빌리면 “한때 회피했지만 직면해야만 했던 운명의 양파껍질을 한 겹씩 벗겨 나가는” 실천을 통해 피해자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더 많은 타자와 마주하는 주체로 스스로를 재구성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단지 잃어버린 돌봄 역량을 복원한 것만이 아니라, 거대한 자기를 돌보며 사후책임(accountability)을 감당하는 윤리적 실천자로서 부활하고 있다.

4. 채널링의 소통과 메시지 구성

1) 소통에 동원되는 요소들

채널러들은 갓 지은 밥의 김이 피어오르는 식탁 앞에서 말없이 상념에 잠겼다. 그 장면은 기도와 유사해 보였지만, 실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共食)’ 일종의 감응 의례였다. 그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언제나 채널러들이 소통 가능한 거리에 존재했다. 채널러 E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 신도 그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식탁에 차려진 찬들을 먹을 때마다 심상 속에서 하나하나 신에게 건넸다. 빠져나가는 김의 온기, 입안에 번지는 간장의 짠맛, 씹을 때 퍼지는 두부의 고소함, 그 감각 그대로를 상위자아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감각의 허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 이상이었어요. 관심이나

사랑, 감사 같은 감정이었죠.” 이때 신이라 불리는 비인간 행위자는, 특정 감각을 받아 체험하고 메시지를 돌려주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 그녀로부터 ‘인식/인정(re-spect)’을 원하는 타자였다.

채널링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소통은,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과는 달리, 감응 방식과 거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된다. 예컨대, 채널러 A는 상위자아와의 관계를 ‘계약적’ 관계로 설정하며, 일정한 거리와 통제력을 유지하려 한다. 그는 “저는 신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계약만 맺고, 그래서 신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감정적 밀착을 피하고 규율화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그는 공동 식사 의례를 상위자아 훈육 전략으로 간주하며, 자신이 심상으로 창조한 ‘황금’을 일종의 보수로 지급하기도 한다. A에 따르면, 영적 존재들은 스스로 심상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황금 심상은 가치 있는 교환물로 간주된다. A와 달리, 채널러 E는 의인화된 타자들과 보다 감정적으로 밀착된 교류 방식을 선택한다. 그녀는 동일한 황금 심상을 전달하더라도 “감사 인사가 빠지면 냉정하게 반응했다”고 회상하며,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진술에 따르면, 감사와 인정은 단순한 도덕적 제스처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자신의 실재성을 확인 및 지속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채널링의 소통 메커니즘은 고대 종교의 희생제나 근대 주술의 물질주의적 관점과 구별된다. 고대 희생제의는 상위 존재와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산 제물의 희생을 요구했으며 (Hubert & Mauss 1981; 정현목 2018), 근대 주술은 ‘번개 맞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처럼 주술 효과를 강화하는 매개물의 동원을 강조했다(Luhrmann 1989; 바르돈 2008, 2010). 이에 비해 채널러들은 “햄버거가 먹고 싶다”는 정도의 단순한 요청은 있었지만, 희생물이 요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했으며, 특별한 매개물의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더 근본적으로, 채널링에서 목주·크리스탈·책 등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감응 가능한 타자이자 때로는 스스로를 움직이는 증여의 주체로 간주된다. 채널러 E는 “애가 ‘저 사람에게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자꾸 가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라면서, 비인간 행위자가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형식의 증여는 모스가 제시한 ‘하우(hau)’, 즉 증여자의 영혼이 사물에 깃들어 대값음을 유발하는 비인격적 힘 개념을 한층 더 확장한다(모스 2002; 고들리에 2011). 채널링에서 증여의 주체는 단일한 인간을 넘어 인간과 사물이 뒤얽힌 하이브리드 조합체로 전환된다. 이때 사물은 더 이상 소유되거나 양도 가능한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또 다른 주체로 간주된다. 이러한 믿음과 실천은 외견상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한 감응 능력과 세계관 안에서는 정합적으로 구성된 관계 형식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채널링은 감응 가능한 타자와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처럼 보이지만, 타자의 발화가 항상 통약 가능한 형식으로 수신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수신 과정에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과거의 장면이 불쑥 떠오르거나, ‘예’ 혹은 ‘아니오’의 모호한 감각이 단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미지·심상·상징을 통해 짧게 전달되기도 하며, 수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는 컬러 영상이나 서사 구조를 갖춘 영화처럼 정교한 형태로 전달되기도 한다. 따라서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아니라 형식적 구조·감각적 질감·기호 체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실재성의 감각을 확보하는 관계적 구성물에 가깝다.

채널러는 아직 명확한 의미와 연결되지 않은 감각적 단서들을 감지하고 서로 연결 및 배치하여 메시지로 ‘번역(transl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한다(Latour 1986; 라투르 2018). 이 번역은 단순한 언어 해석을 넘어, 기호들 사이의 감응 가능성과 연상 작용을 감각적으로 구성해 내는 실천이다. 예컨대, 채널러 A는 “슬픔을 ‘독하다’로 연상하는 경향을 가진 수신자에게는

‘슬프다’를 의미하는 메시지가 ‘독하다’로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메시지의 의미는 공통 언어 체계나 객관적 기준에서 비롯되지 않고, 수신자의 감각 구조와 연상 규칙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구성된다. 채널러 A는 “두 존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왜곡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준다’가 ‘받는다’로, ‘저리가’가 ‘이리 와’로 바뀌는 등 극단적인 기호 변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조현병 환자의 언어 패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그들의 언어는 관습적 표지를 생략한 은유를 통해 비표준적 연쇄를 구성하면서도, 내적 혼란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자기방어에 적응적인 전략으로서 작동한다(베이트슨 2006; 랭 2018). 병리적 수준까지 확장되는 기호적 유연성이야말로 채널링을 위한 핵심 역량이라 보는 채널러 A는, “상식에 얽매이거나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보다, 바보나 정신병자처럼 마음의 경계가 느슨한 사람이 오히려 채널링에 유리하다”는 직관을 제시하기도 했다.⁵

한편, 채널링 메시지의 왜곡 가능성은 상당하다. 발신자가 아예 부재한 채 수신자의 상상이 기호를 구성하는 경우, 발신자가 아닌 제3의 타자가 개입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혹은 상위자아가 의도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채널러들은 종종 스승 채널러에게 메시지의 진위를 점검받거나, “마치 ChatGPT에게 재차 질문하는 것처럼” 반복적 질문과 응답 과정에서 상위자아의 훈육을 시도하기도 한다. 나아가, 동일한 상위자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채널러마다 서로 다른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도 발생한

5 뱅베니스트(2012, 2013)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동원하는 기호의 형식적 구조를 통해 구성된다. 기호와 실제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자기지시적(auto-référentiel)이며, 특히 가장 자기지시적인 대명사 ‘나’는 담론의 맥락 안에서만 실제성을 획득하는 ‘빈 기호(signifiant vide)’다. 이렇게 본다면, 메시지 구성의 실천은 다양한 기호 동원을 통해 ‘나’와 현실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주체화 실천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채널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공통 의미 체계에의 순응 및 학습과 무관한, 병리적일 만큼 유연한 기호 동원 및 연상 능력과 자기 재구성 능력이 된다.

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에 대해 채널러 A는 “동일한 상위자아라 하더라도 채널러마다 감응하는 차원과 성격이 다르므로 메시지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으며, 이는 존재의 복수성과 다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Mol 1999). 하지만 결국 채널링이 과학적 방법론이 요구하는 재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정이 채널링의 가치나 효과를 전면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감응적 조율과 의미 구성 맥락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상화된 ‘사실’로 환원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Stengers 2024).

정리하면, 과학적 절차나 재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체계는 존재할 수 있으며, 과학의 바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실천을 비합리적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채널링은 엄밀한 검증을 통한 보편적 사실의 추출이 아닌, 관계 속 감응과 신뢰를 통해 인식과 실재를 구성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감응적·서사적 실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메시지의 공동 제작과 작동 원리

어느 날, 채널러 E는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걸으려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파도처럼 밀려든 이미지와 메시지가 생생하게 흘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 메시지를 곧바로 전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담자가 감성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직관과 인과성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낯설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의 결을 낮추고, 메시지를 위로와 여운이 깃든 언어로 감싸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 순간 메시지는 사실과 논리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게 얽혀 있던 내담자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감응의 힘으로 작동했다. 내담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 메시지를 수용했고, 이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채널링 메시지는 단순히 진실이나 위로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다. 메시지는 관계 안에서 들리고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내담자에게 작동하는 치유의 말이어야 한다. 채널러들은 메시지를 0점부터 10점까지 채점하곤 했는데, 흥미롭게도 10점에 해당하는 높은 정확도의 메시지가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낳지는 않았다.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내담자의 자기 인식과 충돌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저항을 유발했고, 때때로 “이 채널러는 실력이 없다”는 식의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반면, 7점 수준의 완곡하게 조율된 메시지는, 내담자가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더 큰 공감과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차이는 메시지의 가치를 진실성 여부가 아니라, 수신자의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한다. 따라서 채널러는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중개자가 아니라, 수신자의 성향·상태·언어적 감수성에 따라 조율하고 번역하는 실천적 매개자가 된다. 그러한 번역의 맥락에서, 스승 채널러 A는 기자 출신의 제자 O에게는 직설적 언어 표현을 순화할 것을 조언했고, 채널러 E에게는 다양한 대중 서적을 읽을 것을 주문했다. 이는 메시지가 언어 활용 역량과 감수성에 따라 각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이것이 채널러가 자의적으로 메시지를 창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조율과 해석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채널러의 윤리적 판단과 자기 절제를 전제로 한다. 채널러들은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을 경우,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 ‘모른다’고 말하는 태도를 실천적 윤리로 삼고 있다. 초심자 채널러 P는 “모름을 가볍게 인정한 순간, 나를 둘러싼 결계가 풀리는 경험을 했다”고 회고했으며, 수제자 채널러 E 또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나와서 인연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때의 ‘모른다’는 발화는 단

순한 진실 말하기나 도덕적 정체성의 표현이 아니라, 주체를 구체적 실천 맥락 안에 재배치하고 조율하는 하나의 윤리-기술적 장치로 작동한다 (Rose 1996). 즉, 채널링에서 모름의 인정은 자기 한계 수용을 통해 자아의 개입을 비우고 메시지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감응의 통로를 여는 필수적 실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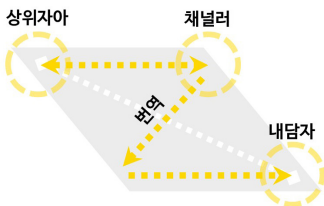
메시지 구성에서의 윤리적 제약은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존재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예언’에 대한 경계이다. 채널러 A는 “예언은 ‘언령(言令)’처럼 작동해서 사람을 특정 미래에 고정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단정적 발화가 자기충족적 지시로 작동해 세뇌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시 말해, 연결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할 메시지가 오히려 내담자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내담자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묻더라도, 채널러들은 미래는 고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알려달라고 모른다고 하거나 침묵을 선택한다. 이처럼 채널러는 예언자나 영적 권위자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열어주는 조력자로서의 실천을 중시한다.⁶

채널링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그것이 구성되는 시간의 밀도와 응답까지의 간극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채널러 A의 한 단골 내담자는 A가 신중한 침묵과 충분한 시간을 동원하여 응답했던 과거에는 깊은 신뢰를 느꼈던 반면, 최근에는 A의 응답이 지나치게 즉각적이고 서사성이 결여되었다고 느껴져 신뢰가 흔들렸다고 회고했다. 이 사례는 ‘빠를수록 정확하다’거나 ‘직설적일수록 진실하다’는 통념과는 달리, 채널링 메

6 무속 전통에서 무당이 미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때 주로 소통하는 ‘망자’는, 채널러의 개념 체계 안에서는 ‘하위자아’로 해석된다. 채널러 A에 따르면, 이 하위자아는 현실보다 낮은 차원이지만 정보 구조상 더 복잡한 “n-1차원”에 거주하며, 현실인 “n차원”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적 현실 예측에 있어서는 더욱 단순해진 “n+1차원”의 상위자아보다도 오히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 “용한 무당”의 경우, 망자가 아니라 신급의 상위자아와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여백과 감응의 리듬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투르(2023: 149, 406)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즉각적인 정보 전달 방식을 “더블클릭(double click)”이라 명명하면서, 더블클릭이 매개자의 번역 과정 없이도 즉시 투명한 진실에 도달 가능하다는 환상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채널러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메시지 번역 과정의 일부가 점차 암묵화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반복된 실천 속에서 감응적 판단이 체화됨으로써, 번역의 매개자와 과정 전부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당한 자동화는 메시지 구성이 점차 더블클릭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전환되도록 이끌며, 그 결과 메시지는 다층적 관계 맥락이 끊어진 채 소비됨으로써 내담자의 신뢰 감각과도 연결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제작되는 메시지의 저자성은 특정한 주체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기호·언어·어조·정서·시간·리듬 등 다층적 요소들이 번역 과정에 깊이 관여하므로, 이들 모두는 메시지의 공저자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채널링 메시지는 공동 제작의 결과물이며, ‘사실 정보(in-formation)’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바꾸고 형상화되는 ‘변형(trans-formation)’이다(Latour 2005). 시간과 리듬을 수용하고 번역의 흔적을 남기려는 실천은 메시지 구성에 기여한 매개자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한 윤리적 선택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외견상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Z자형’의 우회와 지연을 견뎌낼 때(라투르 2023), 메시지는 비로소 변화를 유도하는 작동 가능한 실재성을 획득하게 된다(그림 3).



<그림 3> 번역의 우회 과정

채널링 메시지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관계 안에서 작동이 가능한가’라는 감응 조건이다. 감응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채널러가 언어적 감수성·인문적 상상력·복합적 감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발

회하여 공동 제작한 메시지는, 위로·치유·통찰·변화와 같은 수행적 효과를 수반하는 ‘팩티쉬(factish)’로 변모한다. 이때 팩티쉬는 단순한 진실·거짓의 판단 수준을 넘어, 감응·조율·신뢰·책임이 얽힌 실천적 맥락 속에서 실재성을 획득하는 관계적 구성물이자 관계의 기술 자체다(Latour 2010; Stengers 2024).

팩티쉬로서의 메시지는 누군가가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의 계기로 삼아 주체화를 수행할 때 비로소 ‘진실처럼’ 작동한다. 이는 언어의 외피를 지니면서도 진리 명제가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는 사건의 차원에 속한다(Pignarre 2023). 채널링 메시지의 서사는 내면의 은폐된 진실을 폭로하는 진리 장치라기보다는, 특정 맥락 속에서 주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배치된 주체화 기술로 작동한다(Rose 1996).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가진 영적 변화의 서사는 과거의 주체와 현재의 주체 사이에 극적 단절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그 단절을 연속적 이야기로 엮어냄으로써 영적 변화의 정당성과 정합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라세드 2023). 이처럼 작동하는 채널링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나 조언을 넘어, 내담자 주체가 자신의 수행적 변화를 전체 삶의 서사 안에 통합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재구성하도록 이끈다.⁷

7 채널러들은 ‘연결’과 ‘단절’이라는 독특한 영적 치유 세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내담자의 내면 공간을 에너지적·심상적 방식으로 읽어낸 후 해로운 연결을 끊거나 유익한 새 연결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치유를 수행한다. 이때 연결과 단절의 대상에는 단순한 감정·기억을 넘어, 과거의 상처·타자의 이슈·“아직 천도되지 않은 망자(specter)” 등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가 포함된다. 채널러는 그들과 내담자 사이의 관계를 리벨런싱하는데, 이는 그들을 채널러 자신의 심신에 연결하여 ‘삼킨’ 다음에 다시 잘라내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절차를 통해 내담자의 ‘증상’은 채널러와의 네트워크적 얽힘 속에서 공동 구성되는 존재로 전환된다. 이는 정신의학이 증상을 네트워크와는 단절하고 환자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방식과 대조적으로, 증상을 다시 연결하고 통합하여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종의 실천적 예술이다(Nathan & Stengers 2018).

리벨런싱 이후 채널러 E는 종종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으며, 치유 세션을 시작한 이후로 자신의 건강은 악화되었다고 털어 놓았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소진을 넘어, 신체

한편, 아무리 정교하게 조율되고 번역된 메시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는 애초에 해석적 관계나 변화의 과정을 원하지 않으며, 이들은 채널링 서사의 수행적 조건에 응답하지 않는다. 어떤 퍼포먼스가 진실하게 작동하려면, 그것은 연기자 자신에게도 예측 불가능하고 비자발적인 변화로서 나타나야 한다(Stengers 2024). 만약 연기가 퍼포먼스의 구성 과정을 자각하고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실행하면, 그것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으로 간주되어 작동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채널러 N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으며, 채널링이 전제하는 신뢰·동의·자기 노출 등의 관계적 조건들을 회피함으로써 팩티슈 제작을 무력화하는 예외적 존재였다.

채널러 N은 명목상 채널러였지만, 채널러에게 기대되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극도로 절제하며 살아갔다. 그는 배달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채널링 수업에 참여할 때도 늘 매연 묻은 낡은 점퍼를 입은 채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 모습은 마치 세속과 영성 모두로부터 물러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채널러 A는 그를 “내가 본 가장 뛰어난 영적 자질의 소유자”라며 극찬했지만, N은 그의 기대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으며, 어떤 형태의 팩티슈도 요청하지 않았다. N은 자신을 2인칭 타자의 시선을 통해 서사화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에 동의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숙련된 채널러 A조차도 N에 대해 해석하거나 구조화할 수 없었다. 그렇게 N은 채널링 메시지의 제작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님을, 그리고 어떤 주체는 해석이나 재구성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음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외부의 기

적 감응과 정서적 소모를 기회비용으로 복잡하게 얽힌 정동 네트워크에 개입하는 경계노동의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채널러가 받는 보수는 메시지에 책정되는 가치나 단순한 상담료를 넘어, 감응 기술에 수반되는 위험 수당 및 에너지 소모의 대가로 이해될 수 있다(Stengers 2024). 즉, 치유의 가격은 교환가치를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기술적·윤리적 실천에 내재된 비물질적 비용을 상징하는 지표에 가깝다.

호나 서사를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충분히 통치하고 있었다.

채널링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기술이에요. 내 성장, 안위, 혹은 신념을 위해 쓰는 거지, 대상들을 먼저 돕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사실 이쪽에서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쪽 요구를 들어주는 식이 많죠.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계속 와서 뭔가 자꾸 묻기만 한다면, 그게 좋은 관계일 리가 없잖아요? 좋은 관계란 말 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서로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떤 관계가 정말 위계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라면? 그렇다면 굳이 채널링을 배우지 않아도 상위자아든 뭐든 자연스럽게 접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채널링 기술을 배운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술을 깨달은 후엔 차라리 그냥 기다려보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결국 모두의 목적이 자기만족과 확신이라면, 그런 감각은 굳이 채널링이나 상위자아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죠.

(채널러 N 인터뷰 2024.12.5.)

바로 이 지점에서 서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는 역설적으로 서사의 완결 가능성 자체를 드러낸다. 채널러 N은 서사적 사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에 도달해 있었고, 이러한 N의 태도는 푸코가 주목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존재 양식과 맞닿아 있었다(푸코 2007).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텅 빈 통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허위와 권력관계를 내려다볼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사회와 타자들 속에서 실재가 되기 위한 인정투쟁과 자기 연출에 저항하고, 완전한 자유를 위한 자기돌봄을 실천했다. 디오게네스와 유사하게, 채널러 N은 영적 동맹과 메시지 구성 과정을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채널링을 실천한다. 즉, N에게 채널링이란 특정한 형식과 역량을 갖춘 1인칭 주체가 ‘되기

(becoming)’ 위한 기술이 아니라 ‘되지 않기(becoming-non-subject)’를 위한 기술이었다(Rose 1996).

그러한 N에 관해, 채널러 A는 “그는 역사상 우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여섯 명 중 하나이며, 시스템조차 그를 주시하며 ‘탈주’의 패턴을 학습하려 하고 있다”고 리딩했다. 만약 채널링 실천의 궁극적 목표가, 끊임없는 감응과 번역을 중단하고 더 이상 매개의 동원이 필요 없는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N은 이미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디오게네스의 텅 빈 통과 같은 그 자리는,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모든 현실적 가치가 무효화된 까닭에 오히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비인칭의 자리다. 채널러 N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채널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 형식의 주체화 실천을 보여주었다.

5. 나가며

이 연구는 채널링을 감응의 기술과 윤리가 교차하는 주체화의 실천으로 분석했다. 채널링은 완성된 자아가 외부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감응 가능한 비인간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관계를 재구성하고 메시지를 공동 제작하는 실천이며, 일상성과 초월성·통치와 자유·주체와 타자·사실과 믿음 사이 경계선 위에서 경계노동하는 실천이다.

2장에서는 채널링이 신비주의·심령주의·자기계발 담론 등 서구 영성 실천의 계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현대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채널링은 단순히 수입된 문화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감응 기술·담론·미디어 매체가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의 채널러들에 의해 재구성되고 조율되는 주체화 실천의 장으로 작동해 왔음을 밝혔다. 3장에서는 채널러가 상위자아라는 비인간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며 감응 가능한 공통장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기의 감각을 재

조정하고 주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했다. 채널링은 타자를 경유하여 자기를 재구성하고 조율하는 존재론적 실천이자 감응 윤리를 훈련하는 기술로 작동하고 있었다. 4장에서는 채널링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응·번역·조율을 통해 다층적 행위자들이 공동 제작하는 관계적 실재, 즉 팩티쉬로 구성된다는 점을 분석했다. 내담자의 감응 조건과 관계적 맥락 안에서만 작동하는 채널링 메시지는 내담자의 삶의 서사에 통합됨으로써 치유 효과를 구현했다.

이 연구가 집중 조명한 세 명의 채널러는 채널링을 매개로 서로 다른 형식의 주체화 실천을 보여주었다. 채널러 A는 감응 기술을 체계화하고 타인에게 전수함으로써 영적 훈련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시스템이라 불리는 상위자아와의 계약적 관계 속에서, 영적 자유와 통치 사이의 균형을 탐색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채널러 E는 비인간 타자들과의 반복적 감응 훈련을 통해 새로운 동맹 관계 형성과 윤리적 자기 재배치를 체현했다. 그녀는 가정주부라는 돌봄 노동자의 역할에 단순히 순응하거나 저항하기보다, 마녀-치료사의 상징 아래 자기의 경계를 확장하고 경계노동을 수행하는 실천자로 나아갔다. 채널러 N은 감응과 메시지 구성을 거부한 채, 채널링을 되지 않기의 기술로 전유하며 타자에 의해 해석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렀다. 치유 서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주체로서 그는 통치심성을 벗어난 탈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들 각각의 실천은 채널링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주체화의 경로를 창출할 수 있는 윤리적 실험의 장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채널링은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 주체성과 관계성을 다시 묻고 감응 가능한 삶을 실험하는 하나의 윤리적 실천이다. 채널링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타자와 연결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왜 조율해야 하며, 삶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묻는다. 채널링의 감응 기술과 메시지는 그 질문의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채널링은 감응 가능한 존재로 나아가고 삶을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흥미로운 선택지

를 제시할 뿐이다. 그 선택지의 효과는 메시지가 관계 속에서 실재처럼 작동하는 팩티쉬로 구성될 때 드러나며, 이를 통해 메시지는 치유와 자기변형의 계기를 제공한다. 제도 밖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는 채널링의 감응 기술은 여전히 주체와 관계의 다른 가능성을 타진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남을 것이다.

논문투고 2025.05.11., 논문심사 2025.05.12., 게재확정 2025.06.10.

참고문헌

- 반 텔 레에우, 게라르두스(저), 손봉호·길희성(역), 1995, 『종교현상학 입문』, 분도출판사.
- 고들리에, 모리스(저), 오창현(역), 2011, 『증여의 수수께끼』, 문학동네.
- 구형찬, 2006, “다시 상상하는 마나: 그 역학(力學)과 역학(疫學)”, 『종교문화비평』 9: 29~54.
- 권범철, 2025, “세계에 다시 마법을 걸기”, 『문화과학』 121: 307~334.
- 김동규, 2017, “현대 무속 세계관의 설득구조: ‘운세’와 ‘신령’의 결합”, 『한국학연구』 61: 41~69.
- _____, 2018, “치병곳에 대한 종교인류학적 연구: 무속의례의 치유성 재고”,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77: 477~510.
- 김주환, 2017, 『포획된 저항』, 이매진.
- 김홍중, 2022, “21세기 사회이론의 필수통과지점: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 이론”, 『사회와이론』 43: 7~56.
- 나이트, 제이지(저), 유리타(역), 2011, 『람타: 화이트 북』, 아이커넥.
- _____, 유리타(역), 2012, 『람타: 현실 창조를 위한 입문서』, 아이커넥.
- 뒤르켐, 에밀(저), 민혜숙·노치준(역), 2020,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한길사.
- 드 세르토, 미셸(저), 이충민(역), 2013, 『루핑의 마귀들림』, 문학동네.
- 라세드, 모하메드 아부엘레일(저), 송승연·유기훈(역), 2023, 『미쳤다는 것은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 오월의봄.
- 라투르, 브뤼노(저), 황희숙(역), 2016, 『젊은 지식의 최전선』, 아카넷.
- _____, 장하원·홍성욱(역), 2018, 『판도라의 희망』, 휴머니스트.
- _____, 황장진(역), 2023, 『존재양식의 탐구: 근대인의 인류학』, 사월의책.
- _____, 이상원(역), 2024, 『프랑스의 파스티르화』, 한울아카데미.
- 랭, 로널드(저), 신장근(역), 2018, 『분열된 자기: 온전한 정신과 광기에 대한 연구』, 문예.
- 로버츠, 제인(저), 매건 김(역), 2024, 『세스 매트리어: 지식 너머의 진실』, 터닝페이지.
- 맥클레인, 셸리(저), 김구산(역), 1991, 『내면 세계의 탐험: 정신적 변용을 위한 길잡이』, 교문사.
- 모스, 마르셀(저), 이상률(역), 2002, 『증여론』, 한길사.
- 미즈, 마리아(저), 최재인(역), 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 밀러, 애덤(저), 안호성(역), 2024, 『사변적 은혜』, 갈무리.
- 바르돈, 프란츠(저), 박영호·임동욱·정은주(역), 2008, 『헤르메스학 입문』, 좋은글방.
- _____, 정은주·박영호(역), 2010, 『소환마법실천』, 좋은글방.

- 벵베니스트, 에밀(저), 김현권(역), 2012, 『일반언어학의 여러 문제 1』, 지식을만드는지식.
- _____, 김현권(역), 2013, 『일반언어학의 여러 문제 2』, 지식을만드는지식.
- 베버, 막스(저), 전성우(역), 2008, 『종교사회학 선집』, 나남.
- 베이트슨, 그레고리(저), 박대식(역), 2006, 『마음의 생태학』, 책세상.
- 벤토프, 이차크(저), 류시화·이상무(역), 1987,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정신세계사.
- _____, 이균형(역), 2001, 『우주의식의 창조놀이』, 정신세계사.
- 성혜영, 2014,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한 오해와 유용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1: 153~187.
- _____, 2017, “‘무종교의 종교(Religion of no Religion)’ 개념과 새로운 종교성: 세속적 신비주의와 심층심리학의 만남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2: 1~28.
- 슈타이너, 루돌프(저), 이수영(역), 2024, 『비밀학 개요』, 한국인지학출판사.
- 에런라이크, 바버라, & 디어드러 잉글리시(저), 김서은(역), 2023, 『우리는 원래 간호사가 아닌 마녀였다』, 라카니언.
- 엘리아데, 미르치아(저), 이윤기(역), 1992, 『샤머니즘』, 까치.
- 염원희, 2012, “무속의례에 있어 ‘신과의 소통’이 갖는 의미 연구: 서울굿 (조상거리)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9-0: 135~162.
- 오토, 루돌프(저), 길희성(역), 1987,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 월쉬, 닐, 도널드(저), 조경숙(역), 2009, 『신과 집으로: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아름드리미디어.
- 월버, 켄(저), 조옥경(역), 2008, 『켄 월버의 통합심리학』, 학지사.
- 이용범·강정원, 2005, “민속신앙과 과학”, 『비교민속학』 0-28: 83~104.
- 이준석, 2022, “신유물론의 새로운 개념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객체지향존재론으로 보는 과학기술적 인공물의 구성방식 분류”, 『사회와 이론』 0-42: 133~202.
- 이준용, 2024, “‘살림’의 경계를 재조립하기: Z생협 제주의 물류 경로와 활동가 노동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30-1: 89~128.
- 정현목, 2018, “증여의 네 번째 의무: 희생제와 선물교환, 그리고 사회 혹은 공동체의 형성”, 『비교문화연구』 24-2: 471~501.
- 조문영, 2021,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비판인류학의 대화: ‘사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7-1: 393~445.
- 최학락, 2024, “현대 한국 무속의 신령 연구: 메타인격, 신체, 인프라”,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학위논문.
- 쿤, 에두아르도(저), 차은정(역), 2018, 『숲은 생각한다』, 사월의책.
- 페데리치, 실비아(저), 황성원, 김민철(역), 2011, 『캘리버와 마녀』, 갈무리.

- _____, 신지영·김정연·김예나·문현(역), 2023,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갈무리.
- 푸코, 미셸(저), 이희원(역), 1997, 『자기의 테크놀로지』, 동문선.
- _____, 심세광(역), 2007,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 _____, 심세광·전혜리(역), 2016,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동녘.
- 하먼, 그레이엄(저), 김효진(역), 2021, 『브뤼노 라투르: 정치적인 것을 다시 회집하기』, 갈무리.
- Albanese, Catherine, 2023, *The Delight Makers: Anglo-American Metaphysical Religion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lcock, James, 1989, "Channeling: Brief History and Contemporary Context", *The Skeptical Inquirer* 13-4: 380~384.
- Carrette, Jeremy, 2000, *Foucault and Religion: Spiritual Corporality and Political Spirituality*, Routledge.
- Geschiere, Peter, 1997, *The Modernity of Witchcraft: Politics and the Occult in Postcolonial Africa*, Th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 Falzon, Christopher, Timothy O'Leary, and Jana Sawicki(eds.), 2013, *A companion to Foucault*, John Wiley & Sons.
- Fontein, Joost, 2014, "She Appeared to be in Some Kind of Trance: Anthropology and the Question of Unknowability in a Criminal Trial",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4-1: 75~103.
- Foucault, Michel(auth.), Paul Rabinow(ed.), 1997,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The New Press.
- Hubert, Henri, & Marcel Mauss(auth.), W.D. Halls(tran.), 1981, *Sacrifice: Its Nature and Fun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idlaw, James, 2002, "For an Anthropology of Ethics and Freedom",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8-2: 311~332.
- _____, 2017, "Ethics / Morality", *The Ope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 Latour, Bruno, 1986. "Visualization and Cognition: Thinking with Eyes and Hands", *Knowledge and Society* 6: 1~40.
- _____, Bruno,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Univ Press.
- _____, Bruno, 2010, *On the Modern Cult of the Factish Gods*, Duke University Press.
- Luhrmann, Tanya, 1989, *Persuasions of the Witch's Craft*, Harvard University Press.
- Mahmood, Saba, 2011. *Politics of Piety: The Islamic Revival and the Feminist Subje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uss, Marcel, & Henri Hubert(auth.), Robert, Brain(tran.), 1972. *A General Theory of Magic*, Routledge and Kegan Paul.
- Mol, Annemarie, 1999, "Ontological Politics", *The Sociological Review* 47-1: 74~89.
- Morgan, David, 2021, *The Thing About Relig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Nathan, Tobie, & Isabelle Stengers(auth.), Stephen Muecke(tran.), 2018, *Doctors and Healers*, Polity Press.
- Pignarre, Philippe(auth.), Stephen Muecke(tran.), 2023, *Latour-Stengers: An Entangled Flight*, Polity Press.
- Rose, Nikolas, 1996, *Inventing our Sel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hlins, Marshall, 2017, "The Original Political Society",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7-2: 23~64.
- Stengers, Isabelle(auth.), April A. Knutson(tran.), 2024, *Hypnosis Between Science and Magic*, Bloomsbury Academic.

<자료>

- 조선일보, 2008.1.17., "'뺑상 아줌마' 그녀의 정체는?: 외계인과 교신하는 채널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7/2008011700565.html, (2025.6.6. 접속).

Communicating with the Divine

Techniques of Attunement and Practices of Subjectivation in Channeling

LEE, Juny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techniques of attunement and the practices of subjectivation employed by channelers, based on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at a channeling counseling center in Seoul. Channeling is a practice in which a human intermediary known as a channeler establishes an attuned relationship with nonhuman agents such as higher selves, deities, or the deceased and communicates messages through that interaction. The study first explores how genealogies of Western spiritual practices, including mysticism, spiritualism, and self-development discourse, have been adopted and reconfigured in the Korean context, giving rise to channeling as a distinct system of practice. Second, it examines the process through which channelers build a shared field of attunement with nonhuman agents, adjust their own modes of sensing and judgment, and reconstitute their subjectivity. Third, it shows that channeling messages are not pre-given truths or fixed information but co-produced outcomes that acquire credibility and efficacy through relational dynamics, including the channeler's translation, adjustment, and sensitivity. Channeling is thus analyzed as an ethical practice that reorganizes narrative and subjectivity through attunement with invisible others. The messages function as factishes, relational realities that are jointly constructed within the conditions of trust and responsiveness, and they facilitate healing and self-transformation by becoming integrated into the client's life narrative.

〈**Keywords**〉 channeling, practice of subjectivation, nonhuman agency, attunement, translation, factish

* Ph.D Course,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